

가정생활사건과 가정관리행동성향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y Life Events and the Orientation
of Home Management Behavior on the Satisfaction of Family Life

목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조혜정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임정빈

Dept. of Home Management, Mokpo Univ.
Associate Prof.: Hea-Joung Cho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Prof.: Jeong-Bin Im

〈 목 차 〉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V. 결 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fine the family life events as a input factor of system model, and to underst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life events in the modern multilateral society have and orient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leads a satisfactory life. This study attempted through the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among the components of management system by Deacon & Firebaugh systems theor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 1) As for the influence of family life events on the orientation of home management behavior, the influential family life event on overall the orientation of home management behavior was social problem of family members($\beta = -.128$).
- 2) Family life events which have influence on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were

* 본 논문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financial problem and trouble with husband, members problems, demand for housework and everyday affairs.

3) The subdivision of home management behavior which influenced on the overall family life satisfaction were communication and decision, originality, the use of resources, and the flexibility of plan.

4) Results of path analysis revealed that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out of family life events, resources, the patterns of home management behavior,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the family life events made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higher because they had negative effect on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directly but changed total effect into positive one by family management behavior.

I. 서 론

사회가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가족은 많고 다양한 생활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생활사건은 해결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족의 생활만족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족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은 가정관리의 동기로서 작용하여 가정관리의 투입요소로 간주되며, 가족에게 이러한 생활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능력을 요구한다.

Deacon과 Firebaugh(1975)는 가정관리를 체계적으로 접근함에 있어 많은 연구자들과 다르게 투입요소에 가치, 요구, 자원 이외에 사건을 포함시켰다. 생활사건을 목표와 함께 가족이 해결하여야 하는 중요한 투입요소로 본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설정하는 목표와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은 모두 관리행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이 경험하는 가정생활사건은 가족성장 및 발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정관리의 동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사건에 대한 연구가 가정관리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가족원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에 대해 어떠한 관리체계의 특성으로 대처해 나아가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사건을 가정관리체계의 투입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더욱이 관리행동성향 및 가정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사건은 가족이 해결하여야 할 실제상황이고 문제이므로 이것을 관리체계모형의 투입요소로 설정하여 투입, 과정, 산출의 인과관계로 관리체계모형의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가족이 경험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가정관리행동방안과 가정생활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체계모형의 구성요소에 사건을 투입하여 구성요소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Deacon과 Firebaugh가 체계구성요소로 제시한 사건이 실제 가정관리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것이 입증되리라 본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1. 가정관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

가정관리는 가족의 다양한 요구와 가용자원을 투입하여 계획과 수행의 과정을 거쳐 요구를 만족시키고 자원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다양한 산출을 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한 가정관리는 관리적 하위체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므로 단순히 그 행동에 투입된 요소, 과정, 결과만을 가지고는 파악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지닌 체계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를 할 때 가정관리의 대상으로서 가정생활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정관

리행동을 전체론적으로 접근하여 환경과 관련지어 거시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일반화되고 있다.

가정관리학분야에서의 체계적 접근법은 Deacon과 Firebaugh(1966)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Gross등(1973)과 Paolucci등(1977)에 의해 체계적 접근법에 의한 가정관리연구가 전개되었다. Deacon과 Firebaugh(1975)는 가정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다시 인적, 관리적 하위체계로 나누어 거시적·미시적 환경과 가족체계와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Paolucci등(1977)은 가족의 의사결정을 강조하면서 가족체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는 가족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체계이론을 적용할 때 가족은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로 구성되며, 체계적 접근법은 가족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가정관리행동은 관리적 하위체계를 통하여 상위체계인 환경에 대해 개방성을 가지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발달시키고, 정보와 자원을 교환하고 행동을 조정하여 동기를 유발시키게 되는 행동성을 지닌 체계로서 파악된다. 이것은 체계적 접근이 가정관리를 환경과 독립된 단순한 개별적인 활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으로 보고 그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정관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하위체계로서 가정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고, 가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이 어떻게 투입되어 계획과 수행의 과정을 거쳐 어떤 산출이 되는가를 투입·과정·산출이라는 틀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어 이의 종합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문순재, 1990:144). 그리고 관리체계 이론에 대한 검증은 인식의 개념과 가정관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관리상황의 동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관리행동에 대한 지식의 기초를 강화하는데 유용하다.

2. 가정관리체계의 구성요소

가정관리체계를 이루는 투입, 과정, 산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학자들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Gross 등은 투입요소로서 가치·목표·표준 등의 동기요소와 요구 그리고 자원을 들고 있으며, Deacon 등(1975)은 가족이 설정하는 목표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건을 포함하는 요구와 자원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이들은 요구라는 용어를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Gross 등은 동기요소란 관리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내부적인 요인이고, 요구는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 반하여, Deacon 등은 가족원의 관리행위를 동기화시키는 요구인 목표와 사건은 자원과 같이 모두 가족체계의 내부와 외부에서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목표는 가족의 인적 하위체계에서 발생하며 인적 하위체계를 통해 관리적 하위체계에 직접 투입되므로 목표를 가족체계내의 관리적 하위체계와 인적 하위체계의 중간활동으로 본다. 사건은 인적 하위체계를 통과하여 관리적 하위체계에 직접 투입된다.

체계는 먼저 수행해야 할 행동을 야기하는 요구와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인 자원을 투입으로 받아들인다. 투입은 결과나 산출을 달성하려는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는 물질, 에너지,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요구와 자원으로 구성된다. 실증적으로 체계이론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가족체계나 그 하위체계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구는 목표 지향성 지수, 6세 이하의 자녀수, 주부의 취업상태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Maloch와 Deacon, 1970; Heck, 1983). 자원은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고, 목표와 사건이 만족스럽게 성취되도록 도우며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의 방법을 암시한다. 실증적으로 체계이론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자원은 가족의 건강, 결혼지속연수, 결혼만족도, 부인의 교육수준, 가정의 총소득, 자본재의 수, 주택소유여부, 가족의 총자산, 거주지역 등을 통해서 측정되고 있다(Maloch와 Deacon, 1970; Newton, 1979; Heck, 1983).

과정은 어떻게, 언제, 얼마나 잘할 것인가를 정하

고 실천하는 활동으로서, 유사한 조건에서 상이한 결과물을 가져오는 다중결과성(Multifinality)이나 다른 조건에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동일결과성(equifinality)으로 변화시킬 만큼 산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실증적으로 체계이론을 검증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과정은 계획여부와 실행정도에 따른 관리능력의 점수와 관리행동의 특성으로 측정되고 있다(Beard와 Firebaugh, 1978; Nickell, 1976).

산출은 투입에 대한 반응으로서, 과정을 통해 생기는 물질, 에너지, 정보이다. 실증적으로 체계이론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산출은 요구에 대한 반응 혹은 목표 성취를 재는 척도로서 목표달성도, 관리행동의 만족도, 전체 생활만족도가 대부분이었다(최동숙, 1991; Newton, 1979; Heck, 1983). 또한 자원의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은 처음 사용한 자원의 양과 결과로 나타났을 때의 양과의 차이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Newton, 1984).

3. 가정생활사건

생활사건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자극적인 일이다. 가족의 내부와 외부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가족원이 예측가능한 경우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모든 생활사건에는 신속한 해결과 관리적 대응이 요구되며 심각한 생활사건일수록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마다 경험하는 가정생활사건의 유형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경험빈도가 다르고, 경험한 생활사건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다(Deacon과 Firebaugh, 1975). 그것은 각 가족마다 서로 다른 가치, 목표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을 목표 및 자원과 함께 투입요소로 보아 관리행동을 요하는 중요한 요구적 요소로 개념화할 수 있다.

가족학연구에서는 가정생활사건을 가족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스트레스원으로 간주하며, 생활사건에 의해 가족체계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개인과 가족에게 어떻게 긴장과 위기감으로 나타나

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의 위기와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정민자, 1992). 정신신경의학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관련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사건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생활사건과 정신건강은 절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평숙, 1984). 가정관리연구에서의 생활사건은 가정생활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예측가능한 사건, 예를 들면, 결혼, 임신, 취학, 진학등 가족의 발달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예측할 수 없는 일, 즉, 질병, 사망, 사고, 실직, 기타 여러가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활사건을 모두 포함한다(조혜정, 1993). 즉, 이러한 생활사건은 가족학과 정신신경의학에서 주로 연구하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부정적 사건과는 달리 가정관리동기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비하고 대처함으로써 가정생활의 변화와 발전에 관련이 있는 긍정적 사건으로 본다.

Holmes와 Rahe(1967)은 생활사건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부정적 변화와 재적응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어떤 생활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응에 요구되는 재적응량 및 변화량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에서 생활사건은 생활사건의 수로 제시되기도 하였고, McCubbin과 Patterson(1983)은 누적이라는 개념을 발달시켜 그 값을 스트레스수준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조혜정(1993)의 연구에서는 생활사건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요구되는 변화의 심각성 및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가정관리연구에서는 생활사건을 일상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관리를 요구하는 해결해야 할 문제, 대처해야 할 상황으로서 그 심각도와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관리행동을 필요로 하는 요구적 투입요소로 보려는 것이다.

생활사건은 그 유형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지므로 생활사건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생활사건의 하위요인별로 다른 변인과 각각 다른 관계나 적응양식을 가진다는 여러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의미가 있다. McCubbin 등(1983)은 생활사건을 통례적인 사건과 비통례적인 사건, 내적인 사건과 외적인 사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비통례적 사건(nonnormative events)은 예기치 못했던 사

건으로서 전쟁, 가족원 상실, 전근가족, 맞벌이 부부 가족, 가족내 폭력, 아동의 학대 및 방임, 실직 및 경제적 곤란, 만성장애아 발생등이다. 통례적 사건(normative events)은 임신, 자녀출산, 자녀의 독립, 은퇴와 같이 그 사건의 대부분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보편성과 가족생애주기 중 어떤 예정된 시점에서 언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성을 가진 사건으로서 가족생활주기의 내용에서 비롯되는 사건이다. 외적인 사건(external events)은 사회적·경제적환경 등 가족외적 상황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회가치의 변화, 경제적 여건변화, 법률의 변화등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이며, 개인과 가족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건이다. 반면 내적인 사건(internal events)은 개인적·가족적 상황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임신, 이사, 결혼, 이혼, 가족생활주기단계의 변화 등 의도적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특성을 지닌다. Holmes와 Rahe(1969) 등 몇몇 연구자는 생활사건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바람직한가 아닌가, 사회적인 유입인가 유출인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arason et al., 1978; Vinokur와 Selzer, 1975; Paykel, 1979; Fairbank와 Hough, 1979).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 요인분석에 의해 생활사건의 하위영역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주관적인 분류보다 내적일치도와 신뢰도에 의한 분류를 하고 있어 타당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가정생활사건을 자원과 함께 투입요소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가정관리행동성향을 과정요소로, 가정생활만족을 산출요소로 하여 체계구성요소인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체계적 접근으로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정생활사건 및 자원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가정생활사건 및 자원에 따라 가정

생활만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3〉 가정관리행동성향에 따라 가정생활만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4〉 가정생활사건, 자원, 가정관리행동성향은 가정생활만족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질문지이며,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1차 가척도를 작성하였고 내용타당도는 관련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었고, 요인분석에 의하여 하위변인을 구성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Cronbach' α 계수는 .85-.63으로 나타나 대체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상이었다.

1) 가정생활사건

가정생활사건은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는 자극적인 일이며 관리행동을 필요로 하는 가족체계의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도시가정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105개의 가정생활사건을 측정한 선행연구(조혜정, 1993)를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는 확대가정으로 한정하므로 7개 생활사건을 제외하고 98개 생활사건을 1차 척도로 선정하였다. 98개 생활사건을 구조화하기 위해 요인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 6개 요인의 64개 생활사건을 선정하였다. 6개의 요인은 「일상적 문제」, 「가사노동요구」, 「가족원의 사회적 문제」, 「경제 및 부부관계」, 「가족구성원 변동」으로 명명하였다. 경험한 생활사건에 대한 생활변화요구도를 7점 Likert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변화요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자 원

객관적 자원은 비교적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으로 측정하였고, 주관적 자원은 가정관리자의 인적 특성인 주부 자신의 시간, 건강, 정보 및 지식, 대인적 지원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5점 Likert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가정관리행동성향

가정관리행동성향은 관리과정에서 환경의 변화요구에 대해 얼마나 적응성이 있으며 변화에 수용적일 수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Beard와 Firebaugh(1978), Deacon과 Firebaugh(1981), 최동숙(1990)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계획과 수행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25개 문항을 1차 가측도로 한 후 요인분석에 의해 「계획의 융통성」, 「의사소통」, 「창의성」, 「자원인식」, 「자원활용」으로 명명한 5개 관리행동영역의 14문항을 선정하였다. 5점 Likert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지향적 관리행동임을 의미하게 된다.

4) 가정생활만족

가정생활만족도는 임정빈(1989)과 최동숙(1990)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가정생활에서 기대했던 요구에 비해 달성된 요구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6개 영역의 22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6개 요인은 「일반적 만족」, 「가사수행」, 「생활표준일치」, 「부부관계」, 「자녀관계」이며, 5점 Likert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자료수집,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광주시에 거주하는 확대기 가정의 주부이며, 1,2차 예비조사 실시 후 본 조사는 5월 25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1,100부를 배부하여 899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725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AS Program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요인분석,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Durbin-Watson 검증과 VIF를 산출하여 분석결과를 판단하였다(김두섭, 1993).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인 주부의 연령은 30-40대가 86.3%이고, 고졸이상의 학력이 80.1%, 취업주부가 48.0%, 월평균 가계소득은 159.3만원이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115.9만원(한국통계 연감, 1991)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학력, 소득, 가족구조등으로 보아 도시의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다.

IV. 결과 및 분석

1. 가정생활사건 및 자원이 가정관리행동성향에 미치는 영향

1) 가정생활사건이 가정관리행동성향에 미치는 영향

가정생활사건이 가정관리행동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생활사건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전체 가정관리행동성향과 그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하위영역별 생활사건은 관련된 생활사건의 특성 때문에 가정관리행동 하위영역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쳤다. 가족원의 사회적 문제만이 가정관리행동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족원의 사회적 문제가 많을수록 안정지향적 관리행동성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원의 사회적 문제는 사건이 요구하는 변화를 가족체계가 즉시 수용하지 않고 현재계의 특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가정생활사건 하위영역에서 가정관리행동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생활사건의 특성에 따라 역동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생활사건과 가정관리행동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관계가 직선이 아닌 곡선의 관계일 수 있다고 추측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인 개념인 가치, 의식, 태도등의 인지와 실제행동과의 실증적 연구들에서 그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도

〈표 1〉 가정생활사건이 가정관리행동성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계획의 융통성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창의성		자원인식		자원활용		가정관리행동 성향(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일상적 문제	.004	.046	.010	.096*	.005	.050	.000	.010	.003	.031	.023	.091		
가사노동 요구	-.012	-.084*	.011	.064	.002	.013	-.002	-.015	.000	.004	-.000	-.000		
자녀의 발달	-.006	-.028	-.006	-.026	.010	.050	-.012	-.080*	.001	.008	-.013	-.022		
경제 및 부부관계	.011	.067	-.010	-.048	-.001	-.007	.007	.056	-.003	-.022	.004	.009		
가족원의 사회적 문제	-.001	-.001	-.113	-.193+	-.060	-.118#	-.005	-.014	.010	.022	-.169	-.128#		
가족구성원 변동	.020	.039	-.000	-.000	-.002	-.004	.017	.043	.023	.052	.057	.041		
회귀상수	10.168		11.155		9.663		8.459		5.58		45.024			
F	1.272		5.627+		1.856		1.306		.599		2.528#			
R ²	.010		.044		0.015		0.010		.005		0.020			

(주) * P<.05 # P .01 + P<.001

고려해 볼 수 있다.

2) 자원이 가정관리행동성향에 미치는 영향

자원이 가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시간, 건강, 정보 및 지식, 대인적 지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정관리행동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많은 관리행동과정에서 대인적 지원과 정보 및 지식이 풍부하다고 지각할수록 변화지향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리자의 정보 및 지식과 대인적 지원, 취업상태는 가정관리행동에서 가족의 새로운 목표나 요구를 수용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자원이 가정관리행동성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계획의 융통성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창의성		자원인식		자원활용		가정관리행동 성향(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령	.012	.009	-.041	-.110#	.026	.081*	-.001	-.001	.005	.017	.000	.000		
교육수준	.056	.095#	-.042	-.058	.007	.011	.038	.082*	-.013	-.024	.047	.029		
취업여부	.513	.138+	.138	.031	.042	.011	.014	.005	.309	.093*	1.017	.099#		
건강	.054	.078	.024	.029	-.005	-.007	-.004	-.008	.013	.021	.080	.043		
시간	.021	.031	.028	.034	.027	.039	-.024	-.047	-.055	-.092*	-.003	-.002		
대인적지원	.102	.143+	.295	.341+	.205	.274+	.029	-.053	.050	.079*	.625	.318+		
정보 및 지식	.035	.040	.026	.025	.134	.148+	.023	.034	.175	.226+	.393	.165+		
회귀상수	7.426		8.67		4.396		8.582		4.285		33.364			
F	8.246+		19.082+		16.843+		1.412		9.40+		25.450+			
R ²	.074		.157		.141		.013		.084		.199			

(주) * P<.05 # P<.01 + P<.001

취업여부 가변인: 비취업(0) 취업(1)

2. 가정생활사건 및 자원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1) 가정생활사건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정생활사건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전체 가정생활만족과 그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생활사건 하위영역에 따라 생활사건 자체의 부정적, 긍정적 특성이 구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활사건은 가족의 성장과 발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관리동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람직한 긍정적 생활사건과 심가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아 가족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적 문제와 가사노동요구는 일반가정에서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며 그 자체로서 가정생활만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경제 및 부부관계와 가족원의 사회적문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성을 내포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정생활만족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Holmes와 Rahe, 1969)에서도 생활사건의 요인구조화의 필요성은 생활사건을 긍정적 및 부정적으로 또는 바람직하느냐의 여부로 구분하

고 이러한 생활사건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2) 자원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언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건강, 시간, 대인적 지원, 정보 및 지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전체 가정생활만족도와 그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든 영역의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은 대인적 지원과 정보 및 지식이다.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타인과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정서적 특성인 대인적 지원과 문제나 사건의 구체적 해결수단이며 인지적 특성인 정보 및 지식은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은 자녀관계, 건강은 가사수행에, 취업여부는 생활표준일치와 부부관계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이 지닌 문제 해결력이나 목표달성의 잠재력 특성이 가정생활만족도 하위영역의 요구와 적합하게 일치되었을 때 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부의 인성 특성이며 타인과의 다양한 교류관계인 대인적 지원과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는 정보

<표 3> 가정생활사건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일반적 만족		가사수행		재정상태		생활표준일치		부부관계		사녀관계		가정생활만족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일상적 문제	.032	.164+	-.002	.019	.011	.109*	.006	.094*	-.009	.053	.001	.011	.061	.105*		
가사 노동 요구	.031	.100*	-.007	.041	.041	.085*	.008	.073	-.035	.131*	.004	.022	.099	.110*		
자녀의 발달	.017	.038	-.007	.030	.001	.004	-.005	.031	-.006	.016	.004	.016	.010	.008		
경제및부부관계	-.108	-.301+	-.053	-.272+	-.017	-.088	-.018	-.152+	-.068	-.215+	-.006	-.028	-.259	-.248+		
가족원의 사회적 문제	-.170	-.165+	-.066	-.117+	-.024	-.043	-.056	-.162+	-.173	-.191+	-.091	-.159+	-.582	-.194+		
가족구성원 변동	-.048	-.045	.030	.051	-.009	-.015	-.008	-.021	-.028	-.030	-.054	-.092*	-.120	-.039		
회귀상수	21.898		9.550		9.257		6.944		17.615		10.862		76.132			
F	15.725+		2.820+		7.604+		7.072+		12.734+		4.449+		14.067+			
R ²	.116		.023		.059		.055		.096		.035		.105			

(주) * P<.05 # P<.01 + P<.001

〈표 4〉 자원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일반적 만족		가사수행		재정상태		생활표준 일치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정생활만족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령	.005	.007	.005	.014	.004	.012	-.002	-.010	-.020	-.033	-.013	-.036	-.020	-.010
교육수준	.075	.059	-.010	-.014	.017	.024	.022	.050	-.012	-.011	-.004	-.005	.088	.024
취업여부	.103	.013	.227	.052	.186	.043	.293	.109*	.542	.077*	.285	.065	1.636	.070*
긴장	-.042	-.029	.068	.085*	.043	-.054	-.014	-.029	.055	.043	.063	-.078	-.039	-.009
시간	.103	.072	.061	.077	.024	.030	.038	.078	.073	.058	.112	.142+	.410	.098*
대인적 지원	.612	.399+	.164	.194+	.182	.216+	.139	.268+	.378	.281+	.176	.207+	1.653	.370+
정보및 지식	.233	.120+	.112	.110*	.234	.230+	.049	.079*	.194	.119#	.161	.156+	.976	.180+
회귀상수	9.318		5.132		4.485		4.450		10.340		7.201		40.928	
F	30.783+		13.045+		16.506+		14.160+		18.894+		14.026+		36.028+	
R2	.231		.113		.139		.121		.156		.120		.261	

(주) * P<.05 # P<.01 + P<.001

취업여부 가변인: 비취업(0) 취업(1)

및 지식 같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때 변화가 많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정관리행동성향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전체 가정생활만족과 그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가정관리행동성향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정관리행동 하위영역중 가정생활만족 하위영역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행동은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 창의성으로 이러한 관리행동이 변화하지 않을수록 가정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

〈표 5〉 가정관리행동성향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일반적 만족		가사수행		재정상태		생활표준 일치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정생활만족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계획의 융통성	.160	.074*	.061	.052	.058	.050	.014	.019	.090	.048	.060	.051	.442	.070*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520	.294+	.205	.211+	.097	.100*	.184	.308+	.529	.342+	.174	.178+	1.708	.332+
창의성	.364	.178+	.119	.106#	.150	.134*	.111	.161+	.122	.069	.268	.238+	1.134	.191+
자원인식	.015	.005	.121	.079*	.032	.021	.031	.033	-.015	-.006	-.014	-.009	.168	.021
자원활용	.095	.040	.137	.104*	.078	.060	.030	.037	.227	.108*	.099	.074*	.666	.095*
회귀상수	9.84		3.532		5.18		3.091		7.71		4.894		34.329	
F	33.243+		17.746+		8.497+		29.795+		31.626+		26.526+		47.010+	
R2	.188		.110		.055		.172		.180		.155		.246	

주) * P<.05 # P<.01 + P<.001

해서는 즉, 산출인 가정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원간에 관리과정에서 개방적이고 융통성있는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4. 가정생활사건 및 자원, 가정관리행동성향과 가정생활만족과의 인과관계

가정관리체계의 구성요소인 투입, 과정, 산출요소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앞에서 실시한 회귀계수결과를 이용하여 경로계수를 산출하고, 그 인과모형을 구성해 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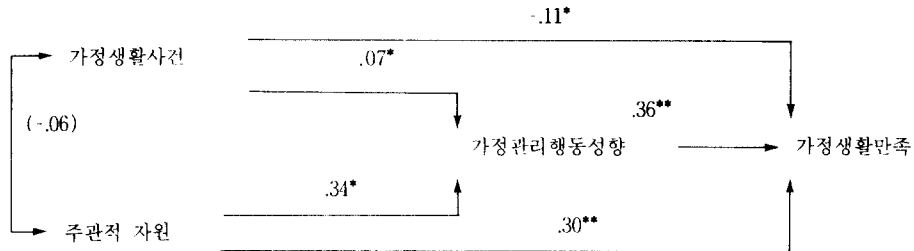
먼저 과정요소인 가정관리행동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투입요소인 가정생활사건과 주관적 자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관리행동성향은 가정생활사건($\beta = .07$)과 주관적 자원($\beta = .34$)에 의해 총분산의 12.3%가 설명되었다. 가정관리체계는 가족의 변화요구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러한 변화요구의 해결수단인 자원이 많을수록 변화를 수용하고 기존체계를 변화시키려는 행동특성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지향적 관리행동에는 변화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 특히 주부 자신의 주관적 자원이 많을수록 변화지향적 관리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므로, 도시가정의 변화지향적 가정관리체계는 요구보다 자원에 의해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산출요소인 가정생활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투입요소인 가정생활사건, 주관적 자원, 과정요소인 가정관리행동성향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정생활만족은 가정관리행동성향($\beta = .36$), 주관적 자원($\beta = .30$), 가정생활사건($\beta = .11$)에 의해 총분산의 30.2%가 설명되었다. 가정생활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관리행동성향이었고, 변화지향적 관리행동일수록, 주관적 자원이 많을수록, 가정생활사건이 심각하지 않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독립변인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표 6>과 같다.

가정생활사건은 가정생활만족에 .11의 직접효과를 미친다. 그러나 가정생활사건이 가정관리행동성향을 경유하여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



<그림 1> 가정생활사건, 주관적 자원, 가정생활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모형

<표 6> 가정생활만족에 대한 제변인들의 인과적 효과

독립 변인	인 과 적 효 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적 효과
가정생활사건	.11	.03 ; 가정관리행동성향 경유	-.08
주관적 자원	.30	.12 ; 가정관리행동성향 경유	.42
가정관리행동성향	.36	-	.36

03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가정생활사건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효과계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하여 총 -.08의 인과효과를 나타냈다. 즉, 가정생활사건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정생활사건이 심각할수록 가정생활만족도는 낮았으나, 가정관리행동성향을 통하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부정적 효과가 감소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주관적 자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30의 직접효과와 가정관리행동성향을 경유한 .12의 간접효과를 주어서 총 .42의 인과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주관적 자원이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변화지향적 가정관리행동을 통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은 가정생활만족에 직접적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관리행동을 통하여 더 증가된 효과를 주는 것도 알 수 있어 가정에서 가정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이지만 효율적인 가정관리를 통하여 더욱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다.

매일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가정생활사건은 가정생활만족에 직접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생활사건도 가정생활사건에 의한 변화요구에 대해 변화를 수용하고 촉진하는 변화지향적 가정관리행동을 행함으로써 부정적 효과가 감소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가정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가정생활사건이더라도 가족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동기요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이 규명되었다. 따라서 모든 생활사건은 관리하지 않으면 가정생활만족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가정생활사건을 가족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동기요소로서 지닌 중요한 의미를 인식하고 가족의 생활사건에 의한 변화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절한 관리행동으로 대처함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가정생활사건에 대처하는 관리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정생활사건과 자원을 체계의 투입요소로 하여, 가정관리행동성향, 가정생활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정생활사건을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이론에 기초하여 가정관리 체계구성 요소로서 실증적 검증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투입요소중 요구요소인 가정생활사건이 과정요소인 가정관리행동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가정관리행동성향에 영향력있는 가정생활사건은 「가족원의 사회적 문제」였다.

가정생활사건 하위영역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후의 연구에서 더 상세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투입요소 중 자원이 과정요소인 가정관리행동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인적 지원($\beta = .318$), 정보 및 지식($\beta = .165$), 취업여부($\beta = -.099$) 순으로 가정관리행동성향에 영향을 미쳤다. 객관적 자원보다 주관적 자원이 가정관리행동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시간, 건강과 같은 개인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획득된 내부적 자원보다 대인적 지원, 정보 및 지식, 취업상태와 같은 사회의 변화와 상호작용하여 획득하는 외부적 자원이 변화지향적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이 매우 의미있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3) 투입요소중 가정생활사건이 산출요소인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정생활사건 중, 경제 및 부부관계($\beta = -.248$), 가족원의 사회적 문제($\beta = -.194$), 가사노동요구($\beta = .110$), 일상적 문제($\beta = .105$) 순으로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사건의 하위영역은 가정생활만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일상적 문제와 가사노동요구는 가정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 및 부부관계와 가

족원의 사회적 문제는 가정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일상적 문제와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사건들은 어느 가정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통례적이며 가족발달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고 해결하면서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가정생활 사건은 가정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 동기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및 부부관계, 가족원의 사회적 문제에 관련된 생활사건은 일반가정에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비통례적 사건이며,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인지할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이 가정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4) 자원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인적 지원($\beta = .370$), 정보 및 지식($\beta = .180$), 시간($\beta = .098$), 취업여부($\beta = .070$)순으로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건강자원은 가정생활만족의 하위영역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늘날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가족이 대처하기에 적절한 자원은 가족원의 내부적 특성자원보다 이웃과 사회의 관계망에서 획득하는 가족원의 외부적 특성자원이라 할 수 있는 대인적 지원, 정보 및 지식을 알 수 있다. 가족은 독자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웃 및 지역사회와 같은 수준과 방향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물질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해 줄 수 있는 정보 및 지식이 가정생활만족인 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5) 과정요소가 산출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정관리행동 중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beta = .332$), 창의성($\beta = .191$), 자원활용($\beta = .095$), 계획의 융통성($\beta = .070$)순으로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리행동이 변화지향적 일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가정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간의 자유스러운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반복되는 일상적 생활에서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의성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 가정생활사건, 자원, 가정관리행동성향, 가정생

활만족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하였다. 가정생활사건은 가정생활만족에 직접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가정관리행동을 통하여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정생활만족도에는 변화를 나타냈다. 자원중 주관적 자원은 변화지향적 가정관리행동을 통하여 가정생활만족도를 더 증가시켰다. 결국 인과모형을 통해 볼때, 가정관리의 체계구성요소인 투입과 과정의 기능으로 산출이 이루어지며, 효율적인 산출을 발생시키는 과정요소의 기능이 중요함을 지지하고 있다.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모형에 기초하여 가정생활사건을 투입요소로 적용하였을때 실증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속한 사회환경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가족내외로부터의 변화의 특성은 가정생활사건을 통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생활사건은 통례적이고 발달지향적인 생활사건과 비통례적이며 가족발달에 장애가 되는 생활사건의 이중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통례적이며 발달지향적인 생활사건의 변화요구에는 변화를 수용하는 변화지향적 관리행동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사회적 문제 즉, 탈규범적, 미도덕적 특성을 지니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족의 기본적 가치규범을 고수하는 안정지향적 관리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체계는 환경의 변화에 단순히 일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잘 조화하기 위해 변화지향적 또는 안정지향적 관리행동으로 반응하는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투입요소인 가정생활사건 및 자원, 과정요소인 가정관리행동성향, 산출요소인 가정생활만족은 인과관계가 있었고, 산출은 생활사건인 요구와 자원으로 구분하여 투입되었을 때 과정요소의 뚜렷한 기능이 잘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생활사건 및 자원, 가정관리행동성향, 그리고 가정생활만족등의 변인은 가정관리체계모형의 구성요소로서 적용가능성이 규명되었다. 특히 가정생활사건이 매일 기능하는 가정관리체계투입요소의 지표로서 적용가능성을 제

시하였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세제, 가족내외부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는 현대도시 가정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리행동방안은 변화지향적 관리행동성향이었다. 그리고 일상적이며 어느 가정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정생활사건이더라도 가정관리체계의 과정요소를 거치지 않으면 가정생활사건이 많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는 낮아지지만, 적극적이고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을 취함으로써 많은 생활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요구가 심각하고 중요하더라도 가정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정관리행동의 중요성이 규명되었다.

【참고문헌】

- 1) 노영남·정용선, “한국인 생활욕구의 요인구조 및 관련변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1호, 1990, 67-87.
- 2) 두경자, “가정관리체계모형의 실증적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3) 배종렬,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4) 백기청, “스트레스와 생활사건”, 정신건강연구, 제10집, 한양대 정신건강연구소, 1991, 10-36.
- 5) 옥선화 외 5인,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문제”,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2호, 1991, 135-153.
- 6) 이정우·박미금,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유형 분류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3호, 1992, 223-239.
- 7) 이정우·오경희, “가정생활정보 인식도와 관리행동유형과의 관계”, 논문집, 제33집, 숙명여자대학교, 1992, 325-358.
- 8) 임정빈, “가치성향·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9) ———, “농촌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4호, 1990, 135-153.
- 10) 임희규, “의사결정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11) 조영희,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2) ———, “자원적정지각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제2호, 1991, 241-251.
- 13) 조혜정, “가정관리행동과 가정관리정도 요구도 및 정보노출도와와의 관계분석”, 논문집, 제11집 1호, 목포대학교, 1990, 93-115.
- 14) ———, “가정생활사건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4호, 1993, 115-132.
- 15) 최동숙, “가정자원 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16) Beard, D. & Firebaugh, F. M.(1978), “Morphostatic and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 Development of a Measure instru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3), pp.192-205.
- 17)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Principles and Applications*, 2nd ed., Massachusetts: Allyn and Bacon Inc.
- 18) Dohrenwerd, B. S.(1973), Life Events as atressor : A Methodological inquir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4, pp.167-175.
- 19) Hafstrom, J. L., Dunsing, M. M.(1973), “Level of living: Factors influencing the Home 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2), pp.119-132.
- 20) Holmes, T. H., Rahe, R. 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9, pp.213-218.
- 21) Lytton, R. H.,(1986), “An Empirical analysis of a system mode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1986.